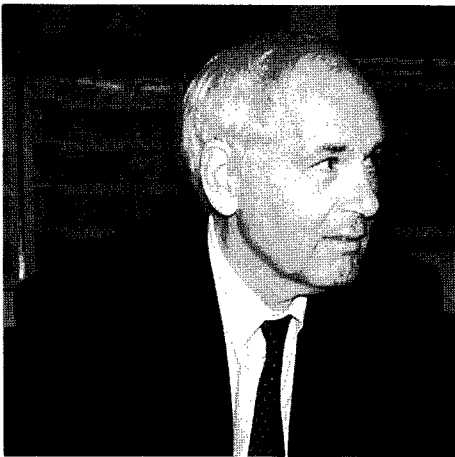


선별 · 포장기, 내구성과 조합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 조글만

▲스탈카트사는 선별기 공급 업체로 금년부터 한국에 소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글만 : 스탈카트사는 말씀하신대로 한국시장에 전자식 자동계란선별·포장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56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하여 전자식 선별기 공급에 있어 세계 정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93한국양계박람회에 참가하여 소개가 되었으므로 많은 양계인들이 직접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산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 인간은 관리

의 능률성 및 용이성을 추구하게 되고 인력 및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고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모든 기계들이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전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스탈카트도 양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전자식 자동계란선별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유럽의 채란농가에서는 계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선별기 보급은 어떤 상황입니까?

▲조글만 : 유럽의 채란농가 계

란 처리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농장이 넓어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30만 수 이상이면 자체 G.P센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선별에서부터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외의 EC국들은 대단위(10만수 이상)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장에서는 집란만하여 G.P센터로 출하하는 형편이므로 농가마다 선별기를 설치하는 곳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란시스템만큼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 미달의 계란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조글만 : 처리규격이라 하면 유럽의 규정에는 1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즉 온전한 것, 금간 것, 깨진 것, 더러운 것, 피물은 것, 오래된 것·규격이상(쌍란, 왕란등)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으나 보통은 4가지만 적용하는데 피물은 계란은 엄격하게 골라내어 보통 액란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계분이 묻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여 제거만 하면 등급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한국이

나 미국이 유럽과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란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라인을 통해 수거해 대부분 액란으로 활용이 되는데 상품적 가치(신선도)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미국은 25% 이상이 액란으로 가공이 되는데 정상란도 소비량에 따라 액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자식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계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글만 : 전자식과 기계식은 계량을 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데 전자식은 추대신 전자식 감응장치를 통하여 계란의 중량을 체크하는 것이어서 처리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1976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간당 25,000개 이상을 처리하게 될 때 능력을 인정 받게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선별·포장기 구입시 고려해야 할 주안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지요?

▲조글만 : 선별기 선택은 자

동차와 같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구성에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두번째는 조합성이 좋아야 합니다. 농장마다 건물내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이건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능률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 특히 한국의 채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계와도 결합이 용이해야 하고 마찰이 적어 파란이 적어지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는 인력의 투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처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편집부장)